

OECD Global Forum on Public Debt Management 정기회의 참석 및 주요국 DMO관계자 면담을 위한 출장

2023. 5. 20. - 5. 26.



1 배경 및 목적

1) OECD Global Forum on Public Debt Management 정기회의 참석

- OECD Gobal Forum on Public Debt Management(이하 PDM)은 5월 22일, 23일 양일간 제30차 정기회의를 개최
 - PDM Global Forum은 OECD 기업금융국(Directorate for Financial and Enterprise Affairs 이하 DAF)에서 매년 개최하는 국제 정책 전문가 회의임
 -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이후 최초의 대면 회의임.
 - 각국의 국제 정책 담당자들은 최근 증가한 글로벌 금융 압력, 금융 변동성의 국제적 공조성 증가로 인해 이 분야에서의 모범 사례 공유 및 시행의 필요
 -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신흥 국가(Emerging Market Countries)들은 국제 시장에서 중요한 주요 주체로 부상하여 선진 시장 국가들과 유사한 상황에 직면
 - PDM Global Forum은 정부 부채관리 분야에서의 모범 사례, 경험, 정책에 대한 토론을 하며, 정부 및 기업 증권 시장의 발전을 도모함
 - 국제관리, 재정정책 및 통화정책 간 복잡한 상호작용에 따른 새로운 정책 이슈들에 대해 토론
- KDI 국제연구팀은 해당 행사 참석을 통해 각 국의 최근 국제 관련 거시 금융환경 및 정책 동향을 살펴보고 향후 국내 국제 정책의 운영 방향 및 연구 방향을 모색

2) 주요국 국제 정책 담당자와 면담

- 주요국 중 국제 발행 및 정책을 위해 부채관리청(Debt Management Office)을 재무부 외부에 두어 국제 관련 정책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부채 비용 적정 관리, 금융시장 발전을 도모함
 - 영국(UK), 아일랜드, 독일 등은 독립된 DMO를 운영하고 있음.

- 아일랜드는 세계 최초로 외부 DMO를 운영한 국가이며, 영국(UK)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설립
 - 영국의 경우 1997년 재무부의 금리결정권을 영란은행으로 이양하면서 영란은행의 국채발행업무를 DMO로 이관
 - 캐나다의 경우 중앙은행(Bank of Canada)이 국채발행 및 관리에 관한 자문을 하고 있음.
- KDI 국제연구팀은 주요국 국채 발행 및 관리 제도 및 DMO의 운영현황을 공유하고자 함.
- 2023년 OECD PDM Meeting 참가국 중 영국, 아일랜드, 미국, 캐나다 등의 담당자와 면담 진행
 - 향후 주요국 DMO 직접 방문 일정, 내용 및 조직 조율

2 출장 개요

- 기간: 2023년 5월 20일(토) ~ 26일(금), 입출국일 포함
- 출장지: 프랑스 파리
- 출장자: 총 2명

	이름	소속 및 직함
1	홍종수	거시·금융정책 연구부 부연구위원
2	신승룡	재정·사회정책 연구부 부연구위원

3 주요 논의내용

▲ 1. OECD 국채 PDM 정기회의 참석

- 개요
- 일시: 5월 22 ~ 23일
 - 장소: OECD 2, rue André Pascal 75016 Paris

- 참석: 각국 DMO 및 국채관련 정책기관,

주요 내용

가. 2023년 OECD 국가 부채 현황 점검 (2023 OECD Sovereign Borrowing Outlook)

- OECD 회원국 및 주요국 국가 부채(Sovereign borrowing)현황 점검, 국채 발행 이슈 및 지속 가능 국채(Sovereign sustainable bond) 현황

주요국 국가 부채 현황 (총 5개 이슈)

- (issue #1)전 세계 국가의 차입 요구와 부채 수준은 여전히 상당히 높은 상태임
 - COVID-19 대유행에 대한 재정 대응으로 인해 2020년에 OECD 지역에서는 기록적인 수준의 부채 발행이 이뤄졌으며, 총 주권적 차입 필요는 15.4조 달러임
 - 차입 수준은 2021년과 2022년에 약간 감소했으나, 2023년에는 6% 증가하여 12.9조 달러로 예상됨.
 - 시장에서의 추가적인 노출을 나타내는 OECD 지역의 순 차입 필요는 2022년에는 대유행 시기의 최고치에서 7.4조 달러에서 2.0조 달러로 줄었지만, 2023년에는 약간 증가하여 2.3조 달러로 예상
 - OECD 지역의 중앙 정부 발행 가능 부채의 미지급액은 2023년에 거의 52조 달러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2019년 대비 약 30% 증가한 수치
 - GDP 대비로 보면, 2020년의 90% 최고치에서 2022년과 2023년에는 약 83%로 감소했지만, 여전히 총 미지급 부채는 대유행 이전 수준보다 GDP 대비 10% 포인트가 높게 유지됨.
- (issue #2)주요국 국채당국은 부채의 평균 만기 기간이 더 길어지는 것에도 불구하고, 상당 부분의 부채를 높은 이자율로 리파이낸싱(refinancing)하고 있음.
 - 지난 1년 동안, 주요국 중앙은행의 정책 금리는 꾸준한 속도로 상당히 상승했으며, 자산 구매 프로그램은 일부 경우에 종료 또는 감소하고 있음.

- 지정학적 긴장과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증가함에 따라 투자자들의 위험 감수력(risk taking capacity)이 감소하고, 많은 시장에서는 유동성 축소로 인한 불안정성이 증가
 - OECD 국가들의 새로운 차입 비용은 2021년 이후로 2배 이상 증가하여, 2021년의 평균 1.4%에서 2022년에는 3.3%로 상승
 - 평균 만기 기간은 OECD 국가들 사이에서 이전 10년 동안 상당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2022년에도 변화가 없었으며, 많은 국가들은 최근 몇 년 동안 저금리로 장기 만기 부채를 발행
 - OECD 전체에서 부채 포트폴리오는 단기금리 변동에 노출될 수 있으며, 2023년에는 29%의 부채가 새로운 금리 조건 하에서 만기를 맞이하거나 조정되어야 하며, 2025년까지는 47%가 해당될 것으로 예상
- (issue #3) 전 세계 국제 시장에서 유동성이 점차 악화되고 있음
- 금융 비용 상승에 더해, OECD의 부채 관리 기관들은 시장 상황의 악화를 보고하고 있으며, 특히 유동성 상황은 2021년과 2022년 사이에 60% 이상의 국가들이 부정적인 변화를 언급하고 있음.
 - 주요국 중앙은행 자산 구매 프로그램의 종료는 시장 참가자들에게 압력을 가할 수 있으며, 따라서 수익률이 증가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정확한 영향은 조절 속도와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issue #4) 긴축적 통화정책으로 인해 신흥시장과 개발도상국들은 높아진 위험에 직면하고 있음.
- 글로벌 유동성 상황의 악화로 인해 '안전자산으로의 이동' 현상으로 인해 신흥시장과 개발도상국(EMDE) 발행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
 - 2022년 기준, 중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신흥국 정부의 국제 발행액은 크게 감소했음.
 - 신흥국 국제 발행은 2021년의 4.1조 달러에서 2022년에는 3.8조 달러로 줄었음.
 - 저소득 국가들은 20%의 미지급 부채가 1년 이내, 42%가 3년 이내에 만기를 맞이하는 등 재금융 위험을 더 크게 직면하고 있음.
- (issue #5) 지속 가능 국제채(sovereign sustainable bonds)의 총 발행액은 이전 최고치로부터 감소했지만, 발행여건은 양호하며, 주권 발행자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음.

- 최근 몇 년 동안 특정한 환경 또는 사회적 결과와 연결된 지속 가능 국제채의 발행은 급격히 증가하여 2021년에는 기록적인 수준에 이르렀으나, 2022년 발행량이 18% 감소함.
- 그러나, 2022년에도 지속 가능 채권을 발행하는 국가의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며, 10개 국가가 처음으로 이러한 채권을 발행했고, 2023년에는 더 많은 9개 국가가 발행할 것으로 예상
- OECD는 이 과정에서 주권 지속 가능 채권 발행의 효율성과 영향을 증대시키기 위해 몇 가지 우선 사항을 권고함.
- 우선 발행자 수준에서 정부는 녹색 예산화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지출을 확장하고 더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능력을 강화해야 함.
- 또한 관련 조직을 설립하고 발행하는 데 자체 능력을 갖추어야 함.
- 마지막으로 시장 수준에서는 지속 가능한 제품, 관련 분류체계, 그리고 영향 보고에 대한 표준화가 필요

나. 정부의 단기자금(cash) 및 부채 관리에서의 계획 및 조정

□ 패널 발표 및 토론

- (개요) 정부 단기 자금 관리는 정부 부문 내의 단기 현금 잔액, 수입 및 지출 흐름을 관리하는 절차를 포함하며, 정치적, 재정적 및 예산 문제를 고려하여 다른 금융 부문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함.
-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의 단기 자금 관리와 부채 관리 간의 조정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
 - 재정 자원 할당에 대한 잘못된 결정은 금융 시장과 통화 정책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자금 조달 비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 각국의 현황 및 단기 자금 및 부채 관리 계획 및 조정 방식 사례를 공유
- (브라질) 2020년 코로나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브라질 재무부는 유동성 예비금 수준과 관련된 과제를 다루기 위해 세가지 정책 도구를 개발하였음.
- 구체적으로, i) 건전한(prudential) 자금 수준 유지 ii) 유동성 완충 기금 확보, 그리고 iii) 각종 기관 위원회를 통한 모니터링임.
 - (건전한 자금 수준 유지) 브라질의 재무부(DMO)는 부채 지급을 위한 신중한 현금 수준을 3개월분의 부채 상환을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금액에 추가적인 예비 비용으로 정의하고, 부채 자원을 소모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사건들을 예견하여, 이로 인해 부채 만기에 위험이 발생하는 것

을 예방함.

- (유동성 완충 기금 확보) 2020년과 2021년에 FPD 유동성 완충 기금은 공공 자금과 중앙은행 예비금으로부터 총 4910억 브라질 레알을 확보함.
- (각종 기관 위원회를 통한 모니터링) 브라질 재무부의 부채 운영의 두 가지 위원회, 즉 GDC(일반 부채 위원회)와 FPC(재정 정책 위원회)를 통해 모니터링함.
- (이스라엘) 변화하는 거시 경제 상황에 따라 단기자금 및 부채관리의 조정이 필요했으며, 이를 위해 다음의 정책 도구를 사용함.
 - (유동성을 고려한 발행) 유동성 확보를 위해 최소한의 금액을 유지하고 발행 범위를 점진적으로 축소
 - (단기 국채 발행 중단) DMO는 총 자금 요구가 감소하고 2차 시장에서 장기 채권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단기 국채 발행 축소.
 - (GDP 대비 국가 부채 축소) 잉여 현금 이용하여 부채 대 GDP 비율을 사태 이전 수준으로 감소
-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DMO는 4년의 기간을 설정하여 국채 관리 전략을 수립하며, 유동성, 시장, 신용, 운영 리스크를 고려함.
 - 기간별(단기,중기, 장기) 리스크를 고려한 단기 자금 및 국채 발행 조정
 - 지방정부와 연방정부간 상환 및 발행 조정이 필요함
 - 녹색 자금 관련 유동성이 증가하여 이를 활용할 필요성 증대

다. 부채 관리를 위한 신뢰성 있는 기관의 중요성 논의

□ 패널 발표 및 토론

- (개요) 통화 정책 정상화, 높은 재정 자금 수요, 불안정한 인플레이션 상황은 투자자들이 정책 변화에 보다 민감해지는 새롭고 복잡한 환경을 조성함.
- 이러한 환경에서 과거 명성과 경험을 갖춘 국채 관리 기관의 존재는 특히 중요함.
- 주요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부채 관리를 위한 신뢰할 수 있는 기관적 프레임워크의 역할에 대해 논의
 - 특히 다음의 주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함: 정부 부채 관리의 역할과 목표

에 대한 명확성, 다양한 기관들(부채 관리 부서, 재정 및 통화 정책 기관 등) 간 책임과 책임 위임, 국가 부채 관리에서 운영적 독립성과 의사 결정 수준, 숙련된 부채 관리 인력을 유치하고 보유하는 능력

- 이에 대해 각국의 경험 및 사례를 공유

- (ADB) 위기 시기에는 거시 재정 정책의 일관성과 조정이 중요하지만, 상충하는 권한과 임무가 문제가 될 수 있음.
 - 효과적인 조정을 보장하기 위해 하나 이상의 위원회가 필요한지 아니면 DMO와 중앙은행 간의 좋은 관계 관리와 효과적인 의사 소통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는 어떤지 논의
 - 지난 3~5년간 DMO와 중앙은행 간의 관계는 어떻게 발전해 왔으며, 이러한 변화를 가져온 요인 파악
 - 각 국가가 직면하는 환경에 따라, 부채 관리, 재정 정책 및 통화 정책을 조정하는 데 사용되는 가장 중요한 과정 또는 메커니즘 파악이 필요
 - 인력 운영의 경우, 일부 국가는 인턴십 직책을 개방하고 있으며, 인턴들은 정부 부채 관리와 관련된 주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경험을 경험하고, 직원들의 성과는 매년 평가되며, 이에 따라 승진 또는 보상 인상 대상이 됨.
- (핀란드) DMO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의회, 재무부 및 국고를 포함한 부채 관리 부서 사이에 권한의 명확한 분담함.
 - 한편 다른 부처 및 정부 기관 간의 조정 및 지속적인 정보를 공유함
 - DMO는 운영에 있어서 독립성을 보장받음.
 - 민간 부분 출신 경험있는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는 핀란드만의 문제는 아님.
- (필리핀) 필리핀의 경우 중앙집권적인 국채 관리 전략을 수립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신뢰성을 확보하려고 함.
 - 프론트 오피스, 미들 오피스 및 백 오피스 고려 사항의 통합을 통해 부채 관리 작업의 효과적인 수립과 실행
 - 혁신적인 자금 조달 구조 및 부채 관리 거래의 손쉬운 도입
 -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시장 인프라는 시장의 마찰 비용을 감소시키고 투자자 베이스와 거래 참가자들의 다양성을 증가

라. 공공 부채 관리에서 지속 가능성 요소를 통합하는 접근 방식의 변화

□ 패널 발표 및 토론

- (개요) 지속 가능한 투자는 점점 더 많은 투자자들과 발행자들이 환경 및 사회와 관련된 정보를 활용하여 전통적인 재무 분석과 함께 투자 결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 지속 가능 채권의 타당성은 다양한 시장 조건에서 시험되어왔으며, DMOs는 투자자들과 정부의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활동에 대한 소통에서 더욱 활발해졌음.
- 지속 가능성 요소를 공공 부채 관리에 통합하는 데 대한 실천 사례 (예: ESG 라벨 채권의 프레임워크, 보고 기준 및 분류체계)와 투자자들의 지속 가능한 투자 관점 (예: 발행자의 ESG 점수 평가, ESG 평가의 사용; 정보 공개 기준, 투자자 선호도)는 여전히 초기단계임.
- 이러한 환경에서 국채에 있어서 지속 가능성 요소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 논의
- 특히 다음과 같은 이슈를 논의함
 - 지속 가능 채권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의 일반적 동기
 - ESG에 민감한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 관리에서 ESG 평가에 얼마나 의존하는지는 정도
 - DMO들이 투자자들이 정보를 얻고 독립적인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역할 논의
 - 주요국 발행 및 운영 경험 공유를 통한 성공적인 지속 가능 채권 발행의 주요 특징 및 시사점 논의
- (프랑스) 지속 가능 채권의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발행자로의 인식 전환이 필요함.
 - 투자자들은 범위를 확대하고 있음.
 - 녹색 금융은 처음에 환경적 전환과 관련된 투자를 기금화하기 위해 특정 채권들로 구성된 고정 소득 시장의 세그먼트로 발전했음.
 - 이 분야의 규제 기구들은 주로 발행자의 평판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따라서 투명성과 투자자들이 발행자의 ESG 프로파일을 특정하는 필요성이 있음.
 - 또한, E, S 및 G 차원들이 지속가능한 발전의 관점에서 긴밀하게 연결

되어 있다는 것이 나타났음.

마. 국채 자금 상환 및 교환 작업에서의 선도적인 사례 공유

□ 패널 발표 및 토론

- (개요) 국가 DMO들은 거래소와 바이백을 사용하여 시장 유동성을 강화하고 대규모 채권 만기 전에 현금 흐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부채 서비스 비용을 감소시키고 있음
- 최근 글로벌 주권 부채 수준의 큰 증가와 정부 증권 시장 유동성에 대한 우려로 인해, 현재 DMO들이 매매 및 바이백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또한 이러한 도구의 사용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세스와 고려 사항에 대한 논의
- 특히 다음과 같은 이슈를 논의함
 - 바이백과 교환의 비용과 이점
 - 국채 바이백과 교환 거래 디자인 (예: 증권 선택, 제공 규모 및 가격 결정)
 - 이러한 작업들에 대한 주요 딜러 및 더 넓은 투자자 베이스와의 의사소통 과정
 - 부채 관리 작업의 성공을 측정하는 방식(measure) 논의
- (브라질) 브라질 국채관리청(NTB)은 지난 몇 년 동안 다양한 목적으로 여러 차례 부채 관리 작업(Liability Management)을 실행해 왔으며, 이에 대한 서명
 - 부채 관리(Liability management, LM)는 정부의 미결제 부채 채무를 관리하기 위해 사용되는 다양한 전략과 기술을 의미
 - 이러한 전략과 기술은 위험을 감소시키고 비용을 최소화하며, 미리 정의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체 부채 포트폴리오를 최적화하는데 사용
 - 일반적으로, LMO의 목표는 정부의 자금 조달 요구를 충족하면서 위험과 비용을 최소화하는 균형 잡힌 지속 가능한 부채 포트폴리오를 달성임
 - 브라질의 경우, 브라질 국채관리청(BNT)은 다른 일부 국가들처럼 공식적인 부채 관리 프로그램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다년간 국내외 시장에서 여러 차례 부채 관리 작업을 수행
 -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에 브라질은 초기 롤오버 경매(Early Rollover Auction)를 활용하여 낮은 현금 잔고를 처리하고 국내 시장 주

권 부채 관리에서 위험을 감소시켰으며, 이후에는 2021년에 상당한 만기를 관리하는 데 사용

- 브라질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부채 관리 작업은 조심해서 사용해야 하며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진행해야 함
- 시장 참가자들의 행동과, 따라서 정부 채권 시장의 가격 형성 역학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이 있음
- 다만 부채관리를 적절하게 사용될 경우, 이는 재무조달 위험을 완화하고 시장 충격을 흡수하며 곡선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강력한 도구임

▲ 2. 주요국 DMO 운영 현황 관련 면담

□ 개요

- 일시: 5월 23~ 25일
- 장소: OECD 2, rue André Pascal 75016 Paris
- 면담자: Fatos Koc, 이태석 (OECD), Frederick PIETRANGELI(미국 재무부 U.S. Department of Treasury) Grahame JOHNSON, Christopher REID(캐나다 중앙은행 Bank of Canada), Robert STHEEMAN(영국 DMO UK Debt Management Office), Anthony LINEHAN(아일랜드 DMO Ireland National Treasury Management Agency), Alexandre VINCENT(프랑스 재무부 Agence France Trésor)

□ 주요 내용

- (개요) 일반적으로 국가 부채 및 국채 관리는 국가 부채, 국채 발행 및 관리 전략 및 실행과정에 대한 거버넌스에서 입법부(의회)는 목표를 설정하고, 집행부(내각 또는 재무 장관)는 부채 관리국(DMO)에 의해 작성된 전략에 대한 결정을 내리며, 이 전략은 재정 및 통화 정책 당국과의 협의과정을 거쳐서 결정됨.
- DMO는 기술적 및 분석적 업무를 담당하며, 특히 대체로 국채 및 관리 전략의 비용과 위험 영향을 분석하는 책임을 맡고, 이를 거시경제 및 시장 계약 조건을 고려해 초안으로 작성함.
- DMO는 초안으로 작성된 부채 관리 전략이 재무 및 통화 정책 당국과 공유되고 논의되었으며, 이러한 당국들의 의견이 적절하게 고려되도록 책임을 지님

○ 주요국 DMO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우리나라 국채 발행 및 관리 정책에 대한 시사점 향후 협의의 방안등을 논의함.

- (영국) 영국 DMO는 부채 및 현금 관리를 담당하며 정부 장관들에게 연간 차입 임무의 형태에 대해 조언을 제공
 - 영국 부채 관리국(DMO)은 1998년 4월 1일에 설립되었으며 정부의 영국 파운드 화폐 채무 발행 책임이 영란은행에서 DMO로 이전
 - 영국 재무성은 영국 정부의 경제 및 재정 부처로서 공공 지출을 관리하고 영국의 경제 정책 방향을 결정
 - 영란은행은 정부의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을 책임지며 금융 안정에도 책임
 - 예산 책임 사무소(Office for Budget Responsibility, OBR)는 장관들과는 독립적으로 공식 경제 및 재정 예측을 발행하는 책임
 -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의 분리는 영국의 경제 정책 프레임워크의 주요 특징
 - 부채 발행과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과 이자율을 결정하는 기관 사이에 명확한 분리를 표방함
 - 각 기관별 역할 및 기능은 Framework Document(2005)에 명시되어 있음.
- (프랑스) 프랑스 국채사무국(Agence France Trésor:AFT)는 국민적 범위(SCN)의 독립 기관으로, 경제, 재무 및 회복 담당 장관과 국고 국채 총무국장에게 직접 보고
 - AFT가 프랑스 경제, 재무 및 회복 담당 장관에게 보고하므로 엄격하게 정의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음.
 - AFT는 정부의 재정 절차에 완전히 익숙한 공무원과 정부와 계약하고 있는 시장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음
 - AFT는 Cash Unit, Debt Unit, Post-Trade Operations and Risk Monitoring Unit, Research and strategy Unit, Macroeconomic Unit, Communication Unit, IT Unit, Internal Control, Compliance, Risk Policy and Legal Affair Unit, Sustainable Finance Unit 으로 구성됨
 - 이 중 Sustainable Finance Unit은 최근 금융시장 변화에 따라 만들어짐.
 - 2020년 말 기준으로 AFT는 총 47명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18명은 계약직원이고 29명은 공무원임.

- (아일랜드) 아일랜드 국채 관리청(Natioanal Treasury Management Agency)
 - 전세계 DMO 중 최초로 독립적으로 만들어진 기관임
 - 1990년 설립되었으며 국가 기금을 위해 차입하고 국가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설립
 - 초기 설립시 민간 전문가들을 고용에 노력하였으며, 이를 위한 급여 및 보상체계 설계에 이슈가 있었음.
 - NTMA은 또한 2014년 12월 22일에 설립된 €81억 유럽 아일랜드 투자 기금(ISIF)을 관리함.
 - ISIF는 국립연금준비기금의 잔여 자산을 사용하여 설립되었으며, 법적 명령에 따라 아일랜드의 고용과 경제 활동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투자함.

- (미국) 미국의 재무부의 경우 정책부서인 Office of Domestic Finance와 운영 부서 Office of Financial Market으로 나누어 국채 발행 및 관리 정책을 실행하고 있음.
 - 최근 미국 국가 부채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국채발행 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위해 리서치팀을 구성함
 - 국채 발행 모형 리서치팀의 경우 현재 5명의 박사급 연구 인력을 보유
 - 발행 모형의 경우 Brian Sack의 논문에서 제시한 모형을 사용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Bank of Canada모형을 바탕으로 개발됨
 - 향후 KDI 국채 연구팀과 미재무부 국채 발행 모형 리서치팀과 발행모형 개발 및 운영에 대해 대면 회의를 진행하기로 구두로 약속함.